

중앙도서관 1층 복합문화공간
2019.9.24.(화)~10.18.(금)

의생명과학도서관 1층 로비
2019.10.22.(화)~11.12.(화)

나노생명과학도서관 3층 아프리움
2019.11.19.(화)~12.13.(금)

인간

2019 부산대학교도서관 특별기획전시

우주를 상상

하다

신화에서 ————— 과학, SF까지

지구에서 인간이 살기 시작한 태초에 밤하늘의 밝은 달을 향해 손짓하였다. 그것은 달에 가고 싶은 꿈이었을까?
1969년, 인간이 지구의 이웃인 달에 첫발을 내딛는 데는 수십만 혹은 수백만 년이 걸린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었다.
그러나 달은 우주를 가기 위한 시작이었다.
신화에서부터 과학. 그리고 SF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우주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상상의 세계를 돌아보았다.

주최
부산대학교 DRB
PUSAN NATIONAL UNIVERSITY

주관
부산대학교도서관 Campus D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전시개막
2019.9.24. TUE
15:00
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복합문화공간

전시문의 기획홍보팀 510-1309,1820

Newsletter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회원 도서관
Vol. 46 2019. 10.



똑똑,
문을 열다

2019 PNU SF Day 강연회
〈SF를 만나다〉

Vol. 46 2019. 10.

효원 도서관

Newsletter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도서관소식지

CONTENTS

- 04 도서관 200% 이용하기 DBpia, ScienceDirect
- 06 특집 기사 PNU-DRB 과학독서 아카데미 1기
- 08 아름다운 인터뷰 과학독서 아카데미 참여자 (강사, 학생)
- 12 사서추천도서 부산대학교 도서관 사서 추천도서
- 14 교수의 서재 나의 서재를 공개합니다.
- 16 여기 issue 끝나지 않은 아픈 역사 강제징용
- 18 통계로 보는 도서관 2015학번 대출성향 분석
- 20 #발견 #이곳 주제가 있는 동네 책방 이야기
- 22 시선집중

발행처 부산대학교도서관 발행인 이수상 발행일 2019. 10. 14.
편집 김미선, 전태경, 정개수, 최덕수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전화 051-510-1810 팩스 051-513-9733 이메일 libplan@pusan.ac.kr
홈페이지 <http://lib.pusan.ac.kr> 디자인 디자인웍스 051-248-1513

〈효원 in 도서관〉은 도서관 홈페이지와 블로그(<http://lib.pusan.ac.kr/pnublog>)에서도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
200% 이용하기

DBpia 제공 학술지의 대체자원 이용하기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 재정은 악화되고 도서관 자료구입비도 감액되는 반면 전자자료 구독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에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효과적인 학술DB 구독을 위하여 전국 대학도서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대응 및 구매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공콘텐츠 독점을 이용한 지나친 가격인상과 불합리한 조건을 제안한 DBpia와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구독중단을 결정하였다.

※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DBpia 인상률 : 최근 4년간 50% 인상

DBpia 구독중단으로 인한 교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DBpia 제공 학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01 부산대학교 도서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학술지명으로 검색

도서관에서는 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문 이용이 가능한 학술지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 DBpia 제공 학술지 2,100여 종 중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 가능 여부 및 범위(논문 수)를 전수 조사하고 분석하였고, 그 결과 56.6%의 논문에 대한 이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02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Korea Citation Index;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이용

KCI는 전체 5,610종(2019. 8. 31. 기준)의 학술지 수록 논문들의 인용색인과 논문원문(약 700,000건)을 제공하고 있다. DBpia에서 최신 논문을 제공하는 700여 종의 학술지 기준으로 약 90% 수준의 논문을 KCI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DBpia에서 제공하는 전체 학술지 대비 50~60% 수준에서 논문 이용이 가능하다.

03 NDSL, 과학기술학회마을, KoreaScience 이용

KISTI에서 운영하는 NDSL(<http://www.ndsl.kr/>), 과학기술학회마을(<http://society.kisti.re.kr/>), KoreaScience(<http://www.koreascience.or.kr/>)에서도 국내 학술지 논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학회마을과 KoreaScience는 1,000여 종의 학술지에 대한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04 RISS 대학도서관간 온라인/오프라인 원문공유 서비스 이용

국내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는 인쇄 학술지 논문의 복사, 각종 연구정보센터를 통한 원문 공유, 각종 OA 사이트(KoreaMed 등) 이용 등이 가능하다.

※ 원문복사(상호대차) 이용방법 확인하기 <https://lib.pusan.ac.kr/service/use-book/ill/>



ScienceDirect 제공 학술지 및 종량제 이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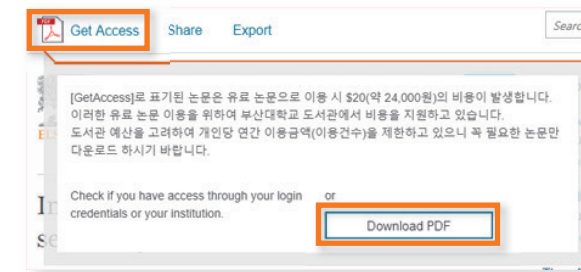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전자자료 구독 비용의 50%(16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ScienceDirect의 인상 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러, 2019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무제한 다운로드] 방식에서 ①이용도가 높은 저널의 무제한 다운로드 & ②이용도가 낮은 저널의 종량제 구입 & ③대체자원 이용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01 ScienceDirect 접속 방법

반드시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ScienceDirect를 이용해야 한다.

- ① 도서관 홈페이지 → 로그인 → 학술논문 : 논문 검색 후 이용
- ② 도서관 홈페이지 → 로그인 → 전자저널 : 저널 검색 후 이용
- ③ 도서관 홈페이지 → 로그인 → 학술DB : 논문/저널 검색 후 이용
- ※ 즐겨찾기, 주소 직접 입력을 통한 ScienceDirect 접속 시 이용 불가
- ※ 인터넷 포털사이트(구글, 네이버, 구글 스킨, 네이버 학술정보 등)에서 논문 검색 후 접속 시 이용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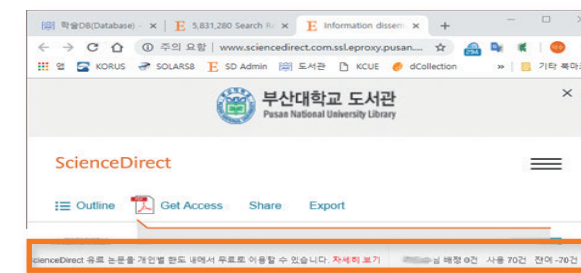
02 종량제 논문 이용 방법



종량제 구입으로 이용 가능한 논문은 [Get Access]로 표기되며, 논문 상세 화면 상단의 [Get Access]를 클릭한 후 [Download PDF] 버튼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 [Download PDF] 버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여 정상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위의 [ScienceDirect 접속 방법]을 참고하여 다시 접속한다.

03 종량제 이용 가능 건수 확인 방법



ScienceDirect 접속 후 창의 하단에 이용 가능 건수(배정 건수, 사용 건수, 잔여 건수)를 확인할 수 있다.

※ ScienceDirect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FAQ 참고

문의 연구정보지원팀 051-510-1863

과학 창작 꿈나무를 위한
분야별 작가와 함께하는
1박 2일

SCIENCE READING
ACADEMY PNU X DRB

PNU-DRB 과학독서 아카데미 1기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수도권 집중화를 벗어나 과학을 매개로 한 창작 활동을 지역에 확산하고 창의적인 과학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부산 향토기업 DRB와 함께 PNU-DRB 과학독서 아카데미를 올해 처음으로 개설하였다.

지난 8월 17일과 18일 이틀간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국립부산과학관에서 「PNU-DRB 과학독서 아카데미」 1기를 개최하였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역사회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과학 창작 활동의 키움터로 처음 개설돼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응원 속에 치러졌다.

특히 지역 거점 국립대인 부산대와 지역기업인 DRB, 공공기관인 국립부산과학관이 상호 협력해 과학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의미를 더했다.

과학창작워크숍

아카데미는 참여자와 강사가 함께하는 1박2일 <과학창작워크숍>과 과학 대중 강연, 메이커 체험, 현장 이벤트 등으로 구성된 <과학창작마당>으로 진행됐다.

<과학창작워크숍>은 부산·울산·경남의 만13세~27세 이하 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28명을 모집·선발해 △생명 혹은 뇌과학에 대한 과학 칼럼 쓰기(송민령 작가) △대중과 과학을 잇다-과학 기사 쓰기(고호관 작가) △만화로 풀어보는 과학정보와 이미지(김명호 작가) 등 3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열렸다. 아카데미 기간 동안의 활동과 최종 창작물을 심사해 우수 창작자 10명에게는 부산대총장상과 국립부산과학관장상 등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과학창작마당

시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은희 작가 특강과 메이커 체험, 현장 이벤트로 구성했다. 행사장을 찾은 약 3천여 명의 시민들은 지역 사회 과학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부산대와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에필로그 | PNU-DRB 과학독서 아카데미 첫 발을 떼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2018년 1월 김세연 국회의원, (주)DRB동일 및 동일고무벨트(주)와 과학 인재 발굴을 위한 과학 및 SF 창작문화사업 협약을 체결한 이후 '과학독서 문화사업'을 2년째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PNU-DRB 과학독서 아카데미를 첫 개설함으로써 과학 독서를 통한 창작 활동의 키움터가 되고자 하였다. 그 첫 발걸음에 <과학창작워크숍> 강사진과 참여자들, <과학창작마당>을 찾아준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주었다.

PNU-DRB 과학독서 아카데미는 지역사회 청소년과 대학생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함께 배우고, 경험하고, 나누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과학독서아카데미 프로그램의 내용과 활동 모습은 과학SF창작플랫폼 홈페이지(ssic.pusan.ac.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문의 도서관 기획홍보팀 (051-510-1810, 1820)



PNU-DRB 과학독서 아카데미 참가자를 만나다

PNU-DRB 과학독서 아카데미 1기 <과학창작워크숍>은 과학 독서와 창작이라는 쉽지 않은 내용과 1박 2일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준 참가자와 늦은 밤까지 열정적으로 참가자를 코칭해준 강사진의 노력이 빛났다. 워크숍 참가 분야별 강사, 대표 학생과 인터뷰를 나누어 보았다.
(인터뷰 내용은 지면 관계상 축약하였다. 인터뷰 전문은 과학SF창작플랫폼(<http://ssfc.pusan.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명 혹은 뇌과학에 대한 과학 칼럼 쓰기반



과학과 대중을 잇다 - 과학 기사 쓰기반



만화로 풀어보는 과학 정보와 이미지반



“생명 혹은 뇌과학에 대한 과학 칼럼 쓰기반”

강사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카이트 바이오 및 뇌공학에서 박사과정을 다니며 뇌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송민령입니다. <송민령의 뇌과학 연구소>라는 책을 냈고 (2017년 아태이론물리센터 올해의 과학도서, 58회 한국 출판문화상 본심 선정 도서), 경향신문과 매일경제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과학 독서 아카데미에 참여하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참가하신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놀랐어요. 아침부터 계속된 일정에 피곤했을 텐데, 쉬는 시간과 다른 활동을 할 시간까지 아껴가며 글을 수정하더니 새벽까지 작업해서 보냈더라고요. 또 글의 수준이 다음날 크게 높아져서 놀랐습니다. 처음에 심사를 했을 때는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는데 다음날은 여러모로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과학 칼럼 쓰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다른 글쓰기와 달리 과학 칼럼에서는 과학적 정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식물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잘 자라고, 욕을 하면 잘 못자란다'처럼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에도 가짜과학이 많아요. 본의 아니게 가짜과학을 유포하지 않으려면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공정하게 사실을 전해야 하며 주장 또한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또 과학 칼럼을 쓸 때는 출처를 표기하기를 권합니다. 정당한 출처는 내 글에 근거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글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과학 문화 확립에 도움이 됩니다. 출처를 명시하는 풍토가 확립되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 어려워지고, 독자들이 출처를 통해 더 깊이 공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출처를 명시하는 것은 출처 저작자의 공로를 알리는 역할을

하므로 콘텐츠 제작 생태계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출처를 표기할 때는 저작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표기된 정보만으로도 출처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자세히 써야 합니다. 이번 아카데미가 출처의 중요성과 표기법을 익히는 데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과학 독서 및 창작 문화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공간이 필요할까요?

과학 창작 문화를 활성화하려면 이공계 전공자가 연구 이외의 활동을 할 기회, '문송'한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과학을 경험할 기회, 그리고 이들이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과학 행사들이 주로 초등학생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계되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필요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다변화되면 좋겠어요. 국립부산과학관, 각지의 메이커 스페이스, 도서관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유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생명과학과에 재학 중인 전영인이라고 합니다.

과학 독서 아카데미는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었나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글 쓰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과를 진학한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제 생각을 펼치는 것보다 보고서를 적는 것이 더 편해졌지만, 과학 독서 아카데미 홍보물을 보고 글을 좋아했던 그 때의 저로 다시 한 번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쓴 창작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저는 뇌량에 대한 칼럼을 적었습니다.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주는 뇌량이 절단되면, '외계인손 증

후군'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방해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 강의시간에 흥미롭게 들었던 기억을 떠올려 주제를 뇌량으로 정하고, 뇌량이 하는 역할과 강화되었을 때, 약화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절단되었을 때를 다루는 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과학독서 아카데미에 참여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작가님들의 진로 탐구 강연과 이은희 작가님의 특강, 과학 부스 체험, 그리고 천체관측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각 프로그램 별로 작가님의 특강을 받고 개인별로 창작물을 첨삭 받는 것이었습니다. 과학 글쓰기와 일반적인 글쓰기의 차이점, 기사와 칼럼의 차이, 과학 글쓰기에서 구사하여야 하는 언어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글을 쓰더라도 첨삭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과학글쓰기에 한 발 더 다가간 기분이었습니다.

과학독서 아카데미에 참여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좋았지만, 일정이 빡빡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다음 과학 독서 아카데미는 2박 3일로 조금은 여유롭게 프로그램을 즐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저는 제 자신을 무엇인가 시작하기에 이미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고 단정 지었던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학 독서 아카데미도 참여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을까, 어린 친구들만 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시작도 전에 겁먹고 고민만 하였습니다. 친구와 함께 용기 내어 참여해보니 여러 체험과 강연,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좋은 친구들을 만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이 저에게는 인생의 한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들이 많이 생겨다른 학우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과 대중을 잇다-과학 기사 쓰기반”



서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기자로 일하다가 현재는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고호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이었지만,

기자가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대학원에서 과학사를 공부하며 석사 과정을 마칠 무렵 앞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다가 동아사이언스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이야기를 회사 생활을 하면서 좋아하는 SF소설을 번역하거나 직접 소설을 써보기도 했고요, 지금은 회사를 나와서 본격적으로 작가 및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학 독서 아카데미에 참여하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계획을 짜면서 하루 만에 얼마나 글쓰기 실력을 키울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습니다. 예상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참가자에게 물어보니 글쓰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로 했던 과학 기사 한 편 쓰기를 모두 마칠 수 있었다는 데 기뻐했습니다. 다들 처음인 상태에서 밤 늦게까지 글을 완성했다는 건 훌륭한 일입니다. 잘 쓰든 못 쓰든 시작한 글을 끝맺어 본다는 경험은 중요하거든요.

과학 기사 쓰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글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할 말이 있어야겠죠? 할 말을 글로 옮기는 것이 글쓰기니까요. 그런데 과학 기사는 자유롭게 생각을 적는 글과 조금 다릅니다. 써야 할 내용과 형식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 형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평소에 다른 과학 기사를 많이 보고 익혀야 합니다. 신입 기자가 들어오면 좋은 기사를 손으로 베껴 쓰는 훈련을 하기도 하는데, 관심

이 있다면 해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평소에 과학적 소양을 쌓아야 합니다. 영어로 된 논문을 읽는 일도 자주 있으니 영어 독해 공부를 많이 해놓기를 권합니다.

과학 독서 및 창작 문화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공간이 필요할까요?

독서와 창작 문화가 활성화되려면 일단 분위기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끔 조금만 진지한 글이 있어도 소위 ‘진지충’이라며 놀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가볍고 재치있는 것을 좋아하는 지금의 분위기가 진지한 것을 배격하는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지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함께 생각해보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저도 막막하네요.



서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정관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최세민입니다. 저는 지구과학

탐사로봇센터 개발에 참여하는 센서공학 연구원을 꿈꿨습니다. 누나들과 Why 만화책(여림당)과 네이버를 보다 곤충은 날개를 초당 190회 이상 파닥거리며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Why책을 누나들과 반복하여 읽으며 그 이해되지 않는 문장들의 용어들을 이해하려 노력하다 과학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과학독서 아카데미는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었나요?

저는 과학을 잘 이해하고 싶고 잘 말하고 싶고 잘 설명하고 싶고 잘 쓰고 싶지만 저는 잘 못합니다. 과학 기사를 읽고, 정보를 정리하여, 누군가가 이해할 수 있게 마음을 다한 글쓰기를 배우고

싶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쓴 창작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저는 ‘아이언맨에서 스파이더맨으로 : 의복형 웨어러블 로봇 점점 가벼워진다’ 주제로 검색엔진을 찾아보았습니다.

2019년 8월 중앙대 이기욱 기계공학부교수님(공동1저자)과 김진수연구원(공동1저자)과 허버드대의 코너월시교수님(교신저자)이 참여한 아이언맨 엑소수트(exosuit)에 대하여 과학기사를 쓰기를 하였습니다.

과학독서 아카데미에 참여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책과 검색엔진을 찾아 읽고 난 뒤 모은 정보를 정리하는 일을 잘 못합니다. 과제 수행을 통하여 ppt제작을 혼자서 하는 일은 부담이 없습니다만 주변 도움없이 혼자서 글을 하얀 종이

에 가득 채우는 일은 부담이었습니다. 이렇게 걱정했던 부분을 궁금함을 검색하고 난 뒤 어떻게 내용을 정리하는 가에 대하여 강사님께서 계속 침묵하여 주시고 글로 이야기하여 주셨습니다. 글을 정리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용기를 가지게 되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과학기사쓰기 때처럼 엄청 작은 글자로 A4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려면 일주일일은 걸리고 결국 하루 정도는 가족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제가 하루만에 A4 한페이지를 가득 채우는 글을 정리하였습니다.

지금은 책보다 게임을 좋아합니다만 원래 책읽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도 독후감 쓰기는 늘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번 방학 독후감 숙제는 아카데미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용기를 내어 하였습니다. 그리고 캠프 때 받은 책으로 2권의 독후감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도 글을 정리하는 연습을 꾸준히 할 것입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서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자칭 과학 만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명호 작가입니다. 비록 과학을 전공하지 않

았지만, 과학을 좋아해 꾸준한 관심을 갖고 책을 읽어왔습니다. 다수의 과학책을 접하며 이해를 돕는 그림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느꼈고, 만화라면 글과 그림을 자유로이 활용해 ‘친절한’ 과학책을 만들 수 있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김명호의 생물학 공방>, <김명호의 과학뉴스>를 썼으며, 현재는 엔씨소프트와 LG화학을 비롯해 다수의 매체에서 과학 만화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중세 과학 삽화 대해 관심을 갖고 꾸준히 공부하고 있으며, 과학잡지 에피에서 “과학을 그리다: 관찰과 표현의 과학사”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과학 독서 아카데미에 참여하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과학 독서 아카데미의 한 프로그램으로 과학만화 그리기 워크숍을 진행하시는 제안을 받았을 때 기쁨보단 걱정이 앞섰습니다. 과학 만화라는 장르의 특성상 그림 그리는 솜씨뿐만 아니라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짧은 시간에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제 노파심은 기우였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 속에서도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고, 부족한 제 강의의 빈틈을 훌륭하게 메워주었습니다. 참가 학생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과학 만화 그리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과학 만화를 요리에 빗댄다면 과학은 재료, 만화는 그릇입니다. 이 재료를 어떻게 요리하고,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몇 컷으로 된 가벼운 카툰부터 정보 중심의 다큐멘터리까지 각각각색의 과학만화가 만들어집니다. 생선, 고기, 야채의 재료적 특성이 각기 다르듯이 과학이라는 재료도 그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성

“만화로 풀어보는 과학 정보와 이미지반”

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먼저 과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과학 지식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해결할 수 있지만, 애정은 강제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과학 만화를 그리고 싶다면 먼저 과학을 사랑하세요!

과학 독서 및 창작 문화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공간이 필요할까요?

독서와 토론 그리고 창작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권의 책을 선정해 읽고, 그에 대해 토론하며, 그 과정에서 피어난 생각을 글이나 만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의 교육은 과학이 마치 대학 진학이나 직업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과학은 세상에 대한 관심에서 태어난 학문입니다. 과학에 관심을 가지려고 처음부터 억지로 어려운 과학책에 코 박고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주위를 찬찬히 둘러보며 주위의 현상들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양운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15살 권민지입니다. 간단하게 저에 대해 말하자면 그림그리기를 좋아하고 만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과학 독서 아카데미는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었나요?

과학 독서 아카데미는 부모님의 권유로 아카데미의 일정과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그중 만화 관련 작가님께서 오신다는 이유로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많은 경험도 쌓고 싶고 새로운 걸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작가님을 실제로 몇 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결코

쉽고 간단한 일도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 더 끌렸던 것 같습니다. 다른 칼럼쓰기나 기사쓰기에도 조금은 관심이 갔지만 역시 제가 좋아하는 만화 덕에 마음을 굳힐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쓴 창작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제가 그린 만화는 원자를 주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기준은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내용이 원자라는 것을 담을까 이었습니다. 고민하던 와중에 1학기 과학 시험 범위에 원자가 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주제로 한 이야기가 어떨까 싶었습니다. 주인공은 두 여학생입니다. 시험 1주일 전, 시험인지 몰랐던 여학생 1은 주변에서 다들 공부를 하는 것을 보고 2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2는 당황하면서 시험범위랑 알려줍니다. 원래 공부를 잘 안하던 1을 위해 2는 시험범위인 원소 중 기본인 원자를 설명하게 함으로서 원자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과학 독서 아카데미에 참여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일단 숙소가 마음에 들었고 2일 동안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도 좋았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체험하거나 내부를 돌아다니며 구경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도 선생님과 작가선생님께서도 너무나 좋은 분들이셨기에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학 독서 아카데미에 참여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작가선생님과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어떨까하는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한 기회만큼 이 기회를 좀 더 누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제가 체험하고 느낀 기분을 다른 학생들이나 후배들 또는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만약 또 다시 아카데미를 한다면 꼭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칼럼쓰기든 기사쓰기든 만화그리기든간에 좋은 경험이 쌓이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하는 기회는 잘 없을 거라고 봅니다.



효원인과 함께 공감하고 싶은 도서 부산대학교 도서관 “사서 추천 도서”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사서들이 직접 읽고 추천한 도서 중 책, 독서, 서점 등을 소재로 다룬 책들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효원인과 함께 느껴보고자 한다.

위험한 책읽기

로버트 P. 왁슬러 | 문학사상사 | 2019 | 312 p.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단행본 [LDM 809.3927 W356r한] 추천사서 | 인문사회팀 이철찬



내러티브를 가진 소설을 읽는 것은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된다.
디지털 시대 문화의 중심은 더 이상 책이 아니다. 이미지와 스크린이 단어와 책을, 즉 시각이 언어를 능가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왜 문학의 운명을 우려해야 할까? 이는 이야기의 참된 의미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언어 내러티브의 중요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한다.
이 책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언어가 우리를 둘러싼 인간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방법이자, 스스로의 내면으로 향해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언어는 우리가 스스로의 특성(개인적 자아), 연대감(사회적 자아), 그리고 익숙함과 낯설음을 발견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언어 내러티브에 대한 고심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 그리고 미래와 연결되게 한다.
저자인 로버트 P. 왁슬러는 문학의 ‘깊이 읽기’와 ‘꼼꼼히 읽기’가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저자는 이른바 우리의 실제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소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내러티브를 가진 소설을 읽는 것은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대부분 장들은 19~20세기의 잘 알려진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문학 내러티브가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줄 수 있는지 생각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진작 할 걸 그랬어 : 책에서 결국, 좋아서 하는 일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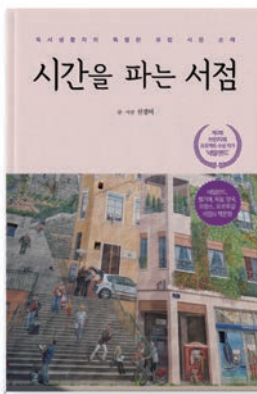
김소영 | 위즈덤하우스 | 2018 | 316 p.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단행본 [LDM 811.4 김55xB] 추천사서 | 전산지원팀 김왕중



나를 만족시킴으로 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즐거움을 만나다.
‘진작할 걸 그랬어’라는 책은 SNS에서 김소영 아나운서가 퇴사 후 동네책방을 차린 뒤 책을 냈다는 것을 본 이후였다. 그녀가 일반인이 아니었기에 좀 더 관심이 간 사실이지만 단순히 그 이유보다는 책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다가 요즘같이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시대에 과감하게 대형서점도 아닌 작은 동네책방을 냈다는 사실이 꽤 신선하게 다가왔다.
1부에는 ‘책방을 간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일본의 다양한 서점을 여행한 이야기가 담겨있고 2부에는 ‘책방을 한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그녀의 책방 운영 이야기가 담겨있다. 북 카페를 몇 번 가보긴 했으나 보통은 한국에 있는 대형서점들만 기본 나로써는 일본의 다양한 컨셉의 서점들의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다. 일주일에 단 한권의 책만 파는 서점, 한 가지 주제에 관련된 책과 엽서, 사진, 상품 등을 파는 서점, 책과 거기에 관련된 생활용품까지 같이 파는 서점, 맥주를 마시면서 책을 볼 수 있는 서점 등 다양한 생각의 전환으로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형태의 서점들이 많았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시도를 해보는 사람들이 점차 생겨났으면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그중의 한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서점 운영을 하면서 느낀 점을 솔직하게 적어놓은 이 책을 보니 TV나 핸드폰보다는 책을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책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매일 내게 가져다 준다는 작가의 말을 모두가 경험해보았으면 좋겠다.

시간을 파는 서점 : 독서생활자의 특별한 유럽 서점 순례

신경미 | 카모마일북스 | 2018 | 351p.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단행본 [HDM 381.45002신14사] 추천사서 | 정보서비스팀 장은영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목적에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한다. 즐길 거리와 먹거리를 찾아 떠나는 힐링 여행이거나 어디론가 떠남을 실천하며 마음의 치유를 하는 여행이 대부분이나, 요즘에는 좀 더 의미 있는 진중한 목적을 가지고 떠나는 여행도 많은 것 같다.
이 책은 네 딸의 어머니 작가(필명 ‘네덜랜드’)가 책을 사랑하는 독자로서, 엄마로서, 또한 교사로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시작으로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 포르투갈 등 여러 유럽국가의 도서관과 주요 서점, 책 마을의 책 문화 현장, 역사를 보여준다. 작가는 네 명의 딸들에게 물질적인 유산을 남겨줄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남겨주고자 유럽의 도서관, 서점 등 책들이 있는 공간의 순례기록을 기술하였다.
작가가 소개하는 서점을 따라 같이 가다보면 우리는 점점 서점이 사라져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서점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책의 가치와 책 문화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또한 오랜 역사의 시간을 지켜온 서점들과 이 서점들이 어떻게 시민들의 자부심이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책에 대한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긴 유럽의 서점들은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 문화를 팔고 그 문화를 향유하는 시간을 판다고 설명한다.

쓰레기 고서들의 반란 : 세월의 때와 천대(賤待)를 견디고 살아남은 고서(古書)들

장유승 | 글항아리 | 2013 | 361 p.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단행본 [HDM 951.0091 장67씨] 추천사서 | 인문사회팀 이철찬



쓰레기 고서 더미에서 건져올린 열다섯 권의 책을 통해 옛사람들의 삶을 읽고 인문학의 길을 찾다
박물관과 고서점에서조차 내팽개쳐진 섭치들, 쓰레기 고서 더미에서 건져 올린 열다섯 권의 책을 통해 옛사람들의 삶을 읽고 인문학의 길을 찾는 책이다. 섭치는 순우리말로 “여러 가지 물건 가운데 변변하지 아니하고 너절한 것”을 말하며 TV소진품명품에 들고 가면 방송관계자가 입구에서 돌려보낼 만큼 흔하고 싼 티 나는 고서들을 말한다. 섭치는 세월이 지나도 섭치라는 말을 듣고, 지공예(紙工藝) 하는 분들이 재료로 활용되는 책, 연대가 올라가봤자 고작 100년이고 독자적인 문헌적 가치도 없어 도서관·박물관, 심지어 고서점에도 진열되지 못하는 고서적 무치들을 그 가혹한 집단 호칭에서 해방시켜 하나하나 분류하고 새롭게 그 역사적·인문학적·독서사회학적 가치를 매긴 작업의 결과물이다.
저자는 머뭇대 껌질을 벗기듯 고서에 내려앉은 묵은 때를 벗겨내서 책의 주인이 간직했던 휘황찬란한 꿈, 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름 없는 저자가 지어내야 했던 서문의 기묘모호한 이야기, 사람들 손을 타며 우축 하단의 침 문은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이미 출판된 종이의 뒷면에 필사해 내려간 책들의 운명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오늘날과 다른 고서의 권과 책의 개념, 고서의 체제와 제작과정, 필사와 목판본, 방각본 등의 차이를 소상하게 일러줘 고서 오디세이를 펼친다.

“사서추천도서” 안내 |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사서추천도서를 게시한다. 자세한 추천 내용이 궁금하시면 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pusan.ac.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나의 서재를 공개합니다

서재는 지도다

장덕현 문헌정보학과 교수

책끼리 대화를 주고받는다든가 책을 나는 사부님 말씀을 듣고서야 깨달았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문득 도서관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그렇다면 도서관이란, 수세기에 걸쳐 책끼리의 음울한 속삭임이 계속되는 곳.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 정복되지 않는, 살아 있는 막강한 권력자, 만든 자, 옮겨 쓴 자가 죽어도 고스란히 살아남을, 무한한 비밀의 보고인 셈이었다

움베르코 에코,
장미의 이름(The Name of the Rose),
이운기 역. 열린책들.



“정보가 지식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바로 서재이다.”

간혹 출장이나 여행으로 비행기를 타는 일이 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항공사의 매거진을 뒤적이다 내 눈길이 머무르는 곳은 주로 취항지들의 연결망을 보여주는 노선지도(Route map)이다. 도시와 도시, 나라와 나라가 어떤 지점들을 통해 연결되는지, 세계지도를 보고 있으면 비행이 짧아진다. 만약 가 본 도시들이 있으면, 그곳에서의 추억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저런 상념으로 되살아나기도 한다.

‘교수의 서재’에 관한 원고 청탁을 받고, 어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아침의 연구실 문을 열고 회색 벽면을 채우고 있는 책장을 둘러본다. 그러다 한 권의 책에 눈길이 갔다. 그리고 나의 연결(networking)과 우연(serendipity)병은 재발한다. 한 책의 장면이 다른 책과 이어지고, 그렇게 한참 책과 책 사이를 기웃거리다보니 시간이 훌쩍 가버렸다.

책들은 연결을 거듭하고 기호는 기호로 이어진다. 정보가 지식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바로 서재이다. 물론 서재에도 이른바 지정석과 자유석이 있는 것 같다. 지정석은 내가 대학에 자리 잡은 이래 꾸준히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몇 권 되지 않는 터줏대감들이다. 이르게는 학생시절 부족한 용돈을 아껴 구입한 책들부터, 다른 대학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동료들과 함께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 ‘흑역사의 증인’들도 있다. 그때는 그랬다. 번역서도 워낙 부족했거나 번역체를 알아먹을 수가 없어 원서를 구하려 해도 도무지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이후 웬만한 것들은 미국 유학시절 대학 인근의 헌책방에서, 혹은 대학 도서관의 처분도서 판매에서 싼 값에 원본을 구입한 후 재제를 부르곤 했다. 대부분은 보스트워의 <The American Public Library>, 윌슨과 타우버의 <The University Library> 처럼 백 살쯤 되었거나, 윌슨의 <Geography of

Reading>이나 존슨의 <Communication> 처럼 적어도 나보다는 나이가 많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고전이다.

책(冊)은 무엇보다 다양한 관계와 위치(positioning)로부터 생산된 담론을 확산함으로써 구성원이 정보를 입수하고 지식화하여 이를 공유하도록 하는 도구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과학자의 서재는 정치적, 사회적 견해가 표현되고 소비되는 공간이다. 예를 들면, 내 연구실의 1번 책장에 있는 그람시나 파농, 하버마스, 푸코, 부르디외, 스피박, 호프스태터 등 내 박사과정 즈음 사회과학도들의 필독서들이 그러하다. 그 옆으로는 내 전공서들, 이를테면 잭슨, 해리스, 고어먼, 버클랜드, 에반스, 버크의 저작들이 있다. 이렇듯 책은 나에게 있어서 상징(symbol)이며 훈련(discipline)이다.

반면, 자유석은 보다 가벼운 경로와 목적에 부합하는 책들을 위한 자리다. 즉, 흔히 교양이라고 불리는 통시적 의식이 담긴 책들이다. 자유석을 차지한 책들은 비교적 최근의 관심을 반영한다. 여기에는 시인이 있다. 부산교육청이 주관하는 이달의 책과 원북원부산운동의 추천도서를 선정하는 일을 몇 년 간 하다 보니 매달 20권 남짓의 책들이 꼬박꼬박 쌓인다. 지금도 김지혜의 <선량한 차별주의자>, 로슬링의 <팩트풀니스>, 최재홍의 <포노사피언스>, 휘터의 <존엄하게 산다는 것>, 러셀의 <방구석 미술관>, 백승종의 <중용, 조선을 바꾼 한권의 책>, 강준만의 <습관의 문법>, 크라비츠의 <감정은 어떻게 전염되는가> 등 다음 달이면 자리를 내줘야 할 책들이 전면에 있다. 이렇게 매달 새로운 책들이 들이치니 자유석은 언제나 붐비고 변화무쌍하다. 더구나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장서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곁에 있으니 이 또한 행운이라, 김진명, 히가시노게이고, 테드창, 베르나르베르베르의

소설 등 짧은 만남을 뒤로 한 채 도서관으로 돌려 보내야 하는 시간들도 임시거처에 머물고 있다. 그저 이런 시간들을 잘 갖춰주는 부산대 도서관이 고맙다.

이번 기회에 서재의 책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모든 책들에 사연이 깃들어 있어 예사롭게 지나치기 어려웠다. 예전 책들을 다시 꺼내 페이지를 들추다 보니 예전에 밑줄 그어놓은 구절들이 보인다. 왜 밑줄을 그어두었는지 분명한 기억은 사라졌지만, 그 때의 진정성과 감동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이렇듯 책은 이어지고 또 이어지며, 서재는 오랜 학문생활의 사고와 축적된 기억의 공간이다.

오래 두고 가까이 한 책들은 다시 꺼내 읽으면서 처음 읽을 때의 느낌과 추억이 되살아나 좋다. 그래서 쉽사리 없애지 못한다. 학생들이 내 연구실에 처음 오면 으레 묻는 것이 있다. “이 책들을 다 읽으셨어요?” 대답은 물론 ‘아니다’이다. 언제까지나 그럴 것 같다. 하지만, 적어도 어느 책의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대략 찾을 수 있다. 마치 지도를 보며 ‘이 곳을 다 가봤냐고 묻는 이에게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도시에 어떤 명소가 있는지는 알고 있다’고 답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책에 관한 한 나의 답은 언제나 궁하기만 하다. 그래서 <장미의 이름>의 또 다른 구절을 인용하며 스스로를 다그치는 것으로 궁색함을 모면해볼까한다.

책의 선은 읽히는 데 있다. 책은 하나의 기호를 밝히는 또 하나의 기호로 되어있다. 기호는 이렇게 모여서 한 사상의 모습을 증언한다. 이를 읽는 눈이 없으면, 책은 아무런 개념도 낳지 못하는 기호들의 집합일 뿐이다. 그런 책은 말 못하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교수의 서재】에서 교수님들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교수의 서재】는 분야별(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등) 우리학교 교수님들의 서재를 통해 그 분야의 독서법과 독서세계를 경험해보고, 서가에 꽂힌 책도 함께 만나보고자 기획된 코너입니다. 교수님에게 서재는 어떤 공간인지, 그리고 교수님의 독서와 인생이야기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교수의 서재】에 칼럼을 써주신 교수님께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함께 드립니다.

분량 200자 원고지 20매 이내 (A4 2장 정도) 문의 도서관 기획홍보팀 051-510-1810

끝나지 않은 아픈 역사

강제징용

과거사(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를 빌미삼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시행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를 시작으로 한국의 일본제품 불매 운동,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한국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일본 배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까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여름이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끝나지 않은 아픈 역사이면서, 현재의 한일 정세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이 되는 '강제징용'의 참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관련 자료를 소개한다.



일본 미쓰비시 탄광에 강제 징용돼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탈출한 한 퇴직교사의 실화 수기

사지를 넘어 귀향까지 : 일제 강제 징용 수기

이 책은 미쓰비시 탄광에 끌려가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탈출한 저자의 강제 징용 수기다. 전남일보가 광복 45주년을 맞아 공모한 일제 강제 징용 수기 공모전에 당선된 입상작이자 피해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더욱 귀한 글이다. 저자 이상엽 어른신이 강제 징용되어 끌려간 것은 1943년 11월경으로, 그의 나이 16세였다. 당시 일제가 제정한 징용령에 의하면 만 17세 이상의 남자에 한해서만 노무자로 동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지만 규정은 무시되었다. '황국신민의 영예로운 산업전사'는 허울 좋은 말일 뿐이었고, 실제로는 허기와 죽음에 맞서며 중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였다. 저자가 징용되었던 가미야마다 탄광은 한마디로 지옥이었다.

이상엽 지음, 소명출판, 2017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HDM 951.06 이51 사



일제 강제동원, 그 잔혹한 역사의 현장으로!

일제 강제동원, 그 알려지지 않은 역사: 일본 전범기업과 강제동원의 현장을 찾아서

일제의 침략전쟁에 동원된 조선인 노무자 연인원 600~700만 명. 1939~1945년, 그 6년 사이 식민지 조선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아 한일 과거사 문제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를 본격적으로 조명한 책이다.

국민일보 현직기자들이 각종 피해자들의 증언과 관련 연구 기록을 토대로 식민지 조선인 강제동원의 실상을 낱낱이 밝힌다. 일본 본토는 물론 사할린, 남양군도까지 일본 전범기업이 조선인 노무자들을 강제 동원했던 작업장을 중심으로 취재한 르포이다. 일제가 조선인 강제동원을 시행하게 된 전후 배경부터 강제동원이 본격화된 1939년 이후의 상황을 피해자의 증언과 관련 연구 기록을 토대로 새롭게 복원했다. 그동안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일본 전범기업과 강제동원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미발굴 자료, 새로운 증언들이 현장 사진들과 함께 생생하게 담겨 있다.

김호경, 권기석, 우성규 지음, 돌베개, 2010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HDM 951.06 김95 오



지옥섬 군함도, 조선인들의 목숨을 건 탈출이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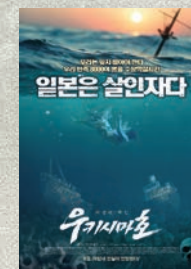
군함도

경성 반도호텔 약단장 '강옥'과 그의 하나뿐인 딸 '소희', 그리고 종로 일대를 주름잡던 주먹 '철성', 일제 치하에서 온갖 고초를 겪어온 '말년' 등 각기 다른 사연을 품은 조선인들이 일본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군함도로 향한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탄 배가 도착한 곳은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해 노동자로 착취하고 있던 '지옥섬' 군함도였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조선인들이 해저 1,000m 깊이의 막장 속에서 매일 가스 폭발의 위험을 감수하며 노역해야 하는 군함도.

한편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자 광복군 소속 OSS 요원 '무영'은 독립운동의 주요인사 구출 작전을 지시 받고 군함도에 잠입한다. 일본 전역에 미국의 폭격이 시작되고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자 일본은 군함도에서 조선인에게 저지른 모든 만행을 은폐하기 위해 조선인들을 갯도에 가둔 채 폭파하려고 한다. 이를 눈치 챈 무영은, 강옥, 철성, 말년을 비롯한 조선인 모두와 군함도를 빠져나가기로 결심하는데...!

중앙도서관 1층 인포메이션커먼스 NVD 791.430951 797



결코 침몰하지 말아야 할 진실

우키시마호

1945년 8월 22일,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을 부산항으로 돌려보낸다는 명목 하에 귀국선 '우키시마호'에 조선인 10,000여 명을 태우고 출항한다. 하지만 부산항을 향하던 우키시마호는 이를 후 마이즈루항 쪽으로 배의 방향을 돌렸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과 함께 수면 아래로 침몰했다. 그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올리며 고향으로 돌아오던 8,000여 명의 조선인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미군이 부설한 기뢰로 인해 폭발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일본, 일본 해군의 계획적인 범죄라고 주장하는 한국, 사건이 발생한 지 74년, 우키시마호 폭발 원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에 갇힌 조선인

환

[제19회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김준기 감독, 2015, 14분 / <https://youtu.be/qARsfzjHI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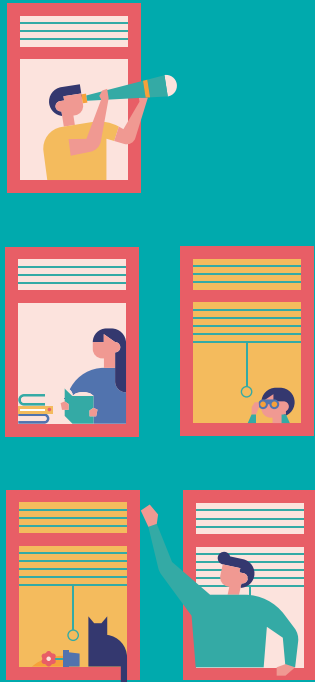
2차 세계대전 당시, 주인공은 조선이지만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일본을 위해 가미카제로 출격을 해야 한다. 고향에 부인과 딸을 두고 그는 제로기에 오른다.

전쟁에서 사망한 그는 이후 '그곳'에 '신'으로 모셔지게 된다.

그곳은 일본 A급 전범들을 신으로 모시고 있다는 '야스쿠니 신사'다.



2015학번 대출성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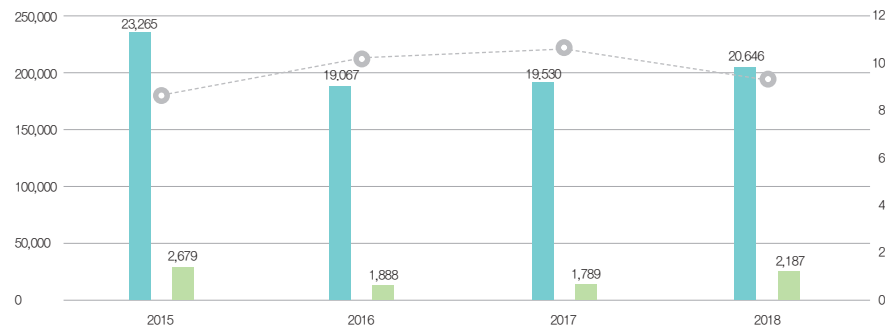


올해 졸업 학번이었던 2015학번 학부생들은 지난 4년간 어떤 도서들을 많이 읽었을까? 이번 호에서는 2015학번 학부생들의 연도별, 주제별 대출 현황 및 대출순위 등을 통해 지난 4년간의 대출형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통계기준
대상 | 2015학번 학부생
자료 | 단행본(취업지원자료 제외)

연도별 대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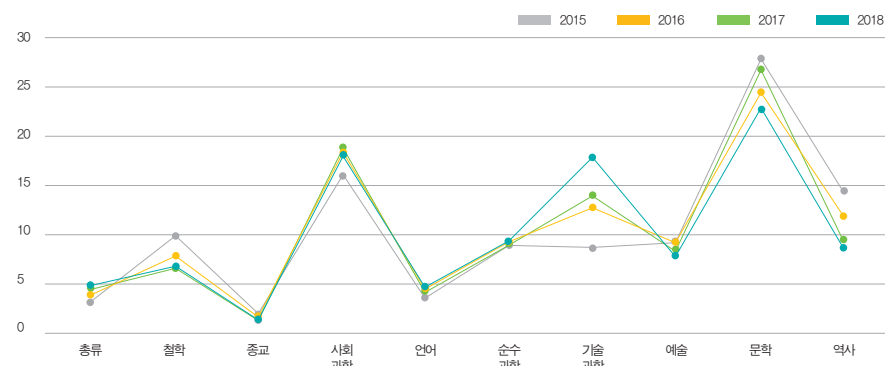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대출책수 | 23,265 | 19,067 | 19,530 | 20,646 |
| 대출자수 | 2,679 | 1,888 | 1,789 | 2,187 |
| 1인당 대출책수 | 8.7 | 10.1 | 10.9 | 9.4 |



주제별/연도별 대출현황

| 구분 | 종류 | 주제 | | | | | | | | | | |
|-------|------|-----|-------|------|-------|------|-------|-------|-------|-------|-------|--------|
| | | 철학 | 종교 | 사회과학 | 언어 | 순수과학 | 기술과학 | 예술 | 문학 | 역사 | 합계 | |
| 2015년 | 대출책수 | 770 | 2,261 | 244 | 3,692 | 746 | 2,147 | 2,020 | 1,887 | 6,163 | 3,335 | 23,265 |
| | 비율 | 3.3 | 9.7 | 1.0 | 15.9 | 3.2 | 9.3 | 8.7 | 8.1 | 26.5 | 14.3 | 100 |
| 2016년 | 대출책수 | 758 | 1,390 | 192 | 3,406 | 625 | 1,735 | 2,404 | 1,711 | 4,672 | 2,174 | 19,067 |
| | 비율 | 4.0 | 7.3 | 1.0 | 17.9 | 3.3 | 9.1 | 12.6 | 8.9 | 24.5 | 11.4 | 100 |
| 2017년 | 대출책수 | 884 | 1,194 | 209 | 3,601 | 770 | 1,695 | 2,720 | 1,451 | 5,120 | 1,886 | 19,530 |
| | 비율 | 4.5 | 6.1 | 1.1 | 18.5 | 3.9 | 8.7 | 13.9 | 7.4 | 26.2 | 9.7 | 100 |
| 2018년 | 대출책수 | 964 | 1,311 | 161 | 3,863 | 882 | 1,952 | 3,768 | 1,396 | 4,563 | 1,786 | 20,646 |
| | 비율 | 4.7 | 6.3 | 0.8 | 18.7 | 4.3 | 9.4 | 18.2 | 6.8 | 22.1 | 8.7 | 100 |

주제별/연도별 대출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주제분야의 대출비중이 비슷하지만 '기술과학', '역사' 분야에서 학년에 따른 확연한 비중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15 ~ 2018 대출순위 베스트

| | | | | |
|--|--|--|--|---|
| <p>제3인류 베르나르 베르베르 열린책들 / 2013 대출횟수 79</p> | <p>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 한길사 / 1995 대출횟수 75</p> | <p>(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박시백 휴머니스트 / 2008 대출횟수 57</p> | <p>스물아홉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하야마 아미리 예담 / 2012 대출횟수 57</p> | <p>1Q84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동네 / 2009 대출횟수 53</p> |
| <p>만나라 이웃나라 이원복 김영사 / 2012 대출횟수 53</p> | <p>변신·시골의사 프란츠 카프카 민음사 / 1998 대출횟수 50</p> | <p>정글만리 조정래 해냄 / 2013 대출횟수 42</p> | <p>살인자의 기억법 김영하 문학동네 / 2013 대출횟수 41</p> | <p>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 민음사 / 2011 대출횟수 41</p> |

| 남학생 대출 순위 | 순위 | 순위 | 저자 | 출판사 | 출판연도 | 대출횟수 |
|-----------|----|-----------------|-----------|-------|------|------|
| 1 | 1 | 로마인 이야기 | 시오노 나나미 | 한길사 | 1995 | 68 |
| 2 | 2 | 제3인류 | 베르나르 베르베르 | 열린책들 | 2013 | 46 |
| 3 | 3 | 1Q84 | 무라카미 하루키 | 문학동네 | 2009 | 34 |
| 4 | 4 | 룬의 아이들, 데모닉 | 전민희 | 제우미디어 | 2003 | 23 |
| 4 | 4 | 변신·시골의사 | 프란츠 카프카 | 민음사 | 1998 | 23 |
| 4 | 4 | 감시와 처벌 | 미셸 푸코 | 나남 | 2005 | 23 |
| 4 | 4 | 비뢰도 | 검류훈 | 청어람 | 2003 | 23 |
| 8 | 8 | 폴 메탈 패닉 | 가토우 쇼우지 | 대원씨아이 | 2005 | 22 |
| 9 | 9 | (趙廷來 大河小說) 太白山脈 | 조정래 | 해냄 | 2007 | 21 |
| 10 | 10 | 三國志 | 이문열 | 민음사 | 2006 | 20 |

| 여학생 대출 순위 | 순위 | 순위 | 저자 | 출판사 | 출판연도 | 대출횟수 |
|-----------|----|------------------------|------------|-------|------|------|
| 1 | 1 | 스물아홉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 하야마 아미리 | 예담 | 2012 | 52 |
| 2 | 2 |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 박시백 | 휴머니스트 | 2008 | 43 |
| 3 | 3 | 살인자의 기억법 | 김영하 | 문학동네 | 2013 | 39 |
| 4 | 4 | (새로 만든) 만나라 이웃나라 | 이원복 | 김영사 | 2012 | 37 |
| 5 | 5 | 제3인류 | 베르나르 베르베르 | 열린책들 | 2013 | 33 |
| 5 | 5 | 이갈리아의 딸들 | 게르드 브란튼베르그 | 황금가지 | 1996 | 33 |
| 7 | 7 |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 밀란 쿤데라 | 민음사 | 2011 | 31 |
| 8 | 8 |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 서의식 | 가람기획 | 2014 | 28 |
| 9 | 9 | 심리학의 오해 | 키이스 스타노비치 | 혜안 | 2013 | 27 |
| 9 | 9 | 변신·시골의사 | 프란츠 카프카 | 민음사 | 1998 | 27 |

**발견
이곳** 동네서점이
뜨다

주제가 있는 동네 책방 이야기

언제부턴가 동네에 있었던 서점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대형 서점 체인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 개인의 취향과 개성이 존중받는 분위기를 타고 자기만의 강점을 선보이는 작지만 예쁜 책방들이 우리 동네 곳곳에 늘어가고 있다. 책 판매뿐 아니라 독서모임, 저자 강연 등 지역사회 관심사가 비슷한 이들 간의 새로운 교류의 장이 되고 있는 '주제가 있는 동네 책방'을 찾아가 보았다.

BOOK



망미단길
책방한타



2018년 11월 9일, 수영팔도시장 안에 문을 연 책방한타는 올해 5월 망미역 근처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문학, 철학, 페미니즘 등의 주제로 책방 주인이 큐레이션한 도서들이 작은 공간이지만 뽀뽀하게 들어차있다. 독서공동체를 지향하는 인문학 책방을 표방하며, 독서모임은 물론 작가초청 북토크도 진행하며 활발한 독서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위치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369번길 22 (수영동) 1층

운영시간
화-금 12:00 ~ 18:00, 토-일 12:00 ~ 20:00

휴관일
월요일 휴무

책방동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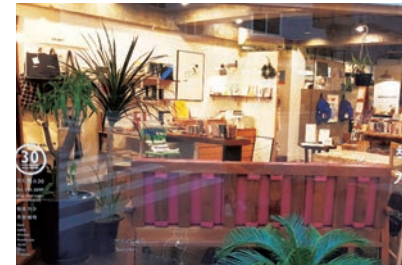
2018년 4월 21일, 신라대 생물학과과 이동주 겸임교수와 숲 해설가들이 만든 국내 1호 자연과학 전문 서점이다. 책방 수익의 50%를 동식물과 숲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이곳은 어려운 과학을 쉽게 풀어주기 위한 특별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 자연과학 스테디도 진행하고 있다. 그림책, 일반도서는 물론 독립출판물까지 자연과학에 관한 재미있는 책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책 표지에 붙여진 주인공의 추천멘트는 방문객들의 책에 대한 흥미를 이끈다.

위치
부산광역시 수영구 과정로15번길 8-1 (망미동)

운영시간
월, 수-금 14:00 ~ 18:00, 토 13:00 ~ 20:00

휴관일
화, 일요일 휴무

부산대
샵메이커즈



2010년 개점한 샵메이커즈는 부산 1호 독립서점으로 책은 물론이고 책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프로젝트 샵이다. 국내외 소규모로 발행되는 디자인 서적과 독립잡지 및 출판물, 아티스트 북을 판매하며 대량 유통되지 않는 디자인 문구, 인디레이블의 음반을 사고 팔 수 있는 문화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서점 내부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는 커피와 디저트도 즐길 수 있으며, 이 공간에서 북토크와 강의도 이루어진다.

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로64번길 120 (장전동)

운영시간
화-일 12:00 ~ 20: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휴무

아스트로박스



2015년 10월 부산대 부근 작은 동네 시장인 장성시장 내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샵메이커즈 옆 건물 1층으로 옮겨 운영하고 있다. 책방지기의 취향이 오롯이 반영되어 있는 인디서점으로 특히 페미니즘, 성소수자 관련 주제 도서를 전문적이고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판매하고 있다.

위치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321번길 7(1층)

운영시간
화-일 14:00 ~ 19:00

휴관일
월요일 휴무(종종 임시휴무)

예쁜책방 헤이즐



2017년 7월 7일 개점한 이곳은 아트북 전문 서점이다. 화집, 팝업북, 영미그림책, 프랑스그림책 등을 전시 판매하고 있는데, 관련 분야의 화귀 절판본도 만나볼 수 있다. 평소 접할 수 없는 신기한 형태의 책들과 굿즈를 만나보고 싶다면 예쁜 책방 헤이즐로 가보자.

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로49번길 50 (장전동)

운영시간
화-일 14:00 ~ 21:00, 화요일 예약 Only

휴관일
월요일 휴무

Special Focus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위한 도서관 시설 공사 실시



상반기부터 하계방학에 걸쳐 도서관 시설 및 환경 공사를 하였다. 새벽별도서관에는 이용자용 승강기 설치, 남자 화장실 공사, 옥상 난간 설치, 정문 주변 도로 정비 공사를 하였다. 또한 중앙도서관 구관 건물의 내진보강 및 주변 환경 공사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어 안전하게 마무리 되었다.

라트비아에서 '한국학 도서·지도 및 고문헌 전시회' 개최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지난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라트비아 국립중앙도서관 전시실에서 '한국학 도서·지도 및 고문헌 전시회'를 열었다. 이

번 전시회는 라트비아대학 설립(1919) 및 라트비아 독립(1918) 100주년을 기념하여 부산대 대외 교류본부와 라트비아대학 국제협력부가 공동 주최한 「2019 라트비아 한국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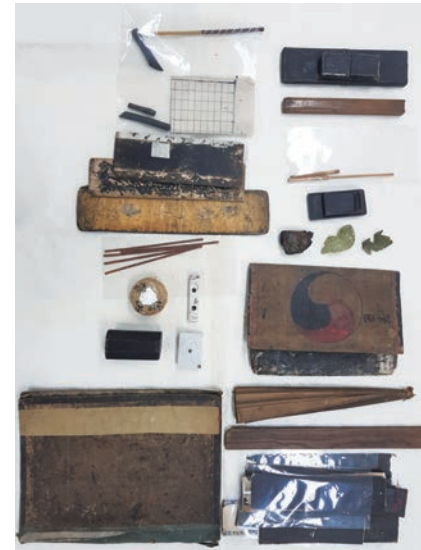


저자와의 만남 - 김진명 작가 초청 강연



9월 19일 교내 효원산학협동관 대회의실에서 '나는 역사에서 길을 본다'라는 주제로 김진명 작가를 초청해 '저자와의 만남'을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에서는 희망을 찾기 어려운 때일수록 나 자신과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곱씹어봐야 할 명제인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졌다. 학내 구성원과 지역 주민 210여명이 강연에 참석하였으며 참석자 선착순 150명에게는 작가의 신작 『직지 1, 2』를 나눠주는 이벤트 등을 진행하였다.

이병혁 명예교수 소장품 기증



인문대학 한문학과를 정년퇴임 하신 이병혁 명예교수가 종이필통, 연적(硯滴), 책갑(冊匣) 등 소장품 18종 53점을 기증하였다. 2007년 1월 6,913점, 2016년 3월 115점, 2018년 4월 141점을 기증하신 이후 네 번째 기증으로 도서관에서는 이 자료들을 우계문고 고문헌자료와 같은 공간에 비치하여 소중히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기증된 소장품은 기증자가 평소에 사용하던 것과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조선시대 학습 및 사회상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도서관 고문헌자료실(051-510-1824)

2019년 '책 읽는 대학' 사업 - 다양한 독서 장려 활동 마련



2019년 '책 읽는 대학' 사업으로 독후감 공모전, 사람책 독서프로그램, 북트레일러, 회원 감동 나눔책 읽기 전시회, 사서와 함께하는 Reading & Watching 등 다양한 참여 활동이 마련된다. 특히 올해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예산을 지원받아 학내 구성원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독서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자 한다.

제2회 김진재 SF 어워드 본선대회



제2회 김진재 SF 어워드 1차 예선이 9월 30일로 마감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선을 통과한 본선 진출작을 대상으로 11월 16일(토) 부산 금사동 Campus D 고촌홀에서 본선대회를 진행한다. 본선대회는 관심있는 누구나 참관할 수 있고 Campus D에서 진행될 (가칭)DRB-Sciport 미래 꿈과학체험전 (11.15.~16.)과 연계하여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할 수 있다.

문의 | 도서관 기획홍보팀(051-510-1810, 1820)

부산대학교 SCI급 연구성과 보고서 발간

부산대학교 연구자가 2018년 한 해 동안 게재한 SCI급 연구성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그 중 최근 10년간 Nature, Cell, Science에 게재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 우리 대학의 NATURE, SCIENCE, CELL 학술지 게재 현황 |

| 번호 | 논문제목 | 학술지명 | 발행년도 | 부산대 저자명 | 소속 |
|----|--|---------|------|--------------------------|-------------|
| 1 | El Nino-Southern Oscillation complexity | NATURE | 2018 | 윤경숙, 이준이 | 환경연구원 |
| 2 | A metabolite-derived protein modification integrates glycolysis with KEAP1-NRF2 signalling | NATURE | 2018 | 윤화영 | 약학부 |
| 3 | De novo NAD(+) synthesis enhances mitochondrial function and improves health | NATURE | 2018 | 류동렬 | 한의학과의과 |
| 4 |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alters cell wall glycosylation to evade immunity | NATURE | 2018 | 이복률, 김선화 | 약학부 |
| 5 | Assessing whether the 2017 M-w 5.4 Pohang earthquake in South Korea was an induced event | SCIENCE | 2018 | 김광희, 강수영, 서우석 | 지질환경 과학과 |
| 6 | Integrated genomic characterization of oesophageal carcinoma | NATURE | 2017 | 박도영 | 대학병원 |
| 7 | Global Lambda hyperon polarization in nuclear collisions | NATURE | 2017 | 유인권, 오근수 | 물리학과 |
| 8 | A gravitational-wave standard siren measurement of the Hubble constant | NATURE | 2017 | 이창환, 김영민, 조희석 | 물리학과 |
| 9 | The brain's functional network architecture reveals human motives | SCIENCE | 2016 | 설선혜 | 심리학과 |
| 10 | Testing the mid-latitude hydrologic seesaw Reply | NATURE | 2015 | 임현수 | 지질환경 과학과 |
| 11 | Measurement of interaction between antiprotons | NATURE | 2015 | 유인권, 오근수 | 물리학과 |
| 12 | Mid-latitude interhemispheric hydrologic seesaw over the past 550,000 years | NATURE | 2014 | 임현수 | 지질환경 과학과 |
| 13 | Comprehensive molecular characterization of gastric adenocarcinoma | NATURE | 2014 | 박도윤 | 의과학과 |
| 14 | A type I-secreted, sulfated peptide triggers XA21-mediated innate immunity (Retraction of vol 326, pg 850, 2009) | SCIENCE | 2013 | 서영수 | 미생물학과 |
| 15 | A Cenozoic record of the equatorial Pacific carbonate compensation depth | NATURE | 2012 | 히로유키 타카타 | 연안환경 시스템사업단 |
| 16 | Observation of the antimatter helium-4 nucleus | NATURE | 2011 | 유인권, 최경연, 오근수 | 물리학과 |
| 17 | Intravenous delivery of a multi-mechanistic cancer-targeted oncolytic poxvirus in humans | NATURE | 2011 | 황태호, 제지은, 이연숙 | 의학과 |
| 18 | Light-Controlled Self-Assembly of Semiconductor Nanoparticles into Twisted Ribbons | SCIENCE | 2010 | 이재범 |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 |
| 19 | Observation of an Antimatter Hypernucleus | SCIENCE | 2010 | 유인권, 이창환, 최경연, Grube, B. | 물리학과 |

문의 | 도서관 연구정보지원팀(051-510-1306), PNU Scholar 홈페이지